

# ‘철벽 불펜’ KIA, 추격조 부진에 “난감하네”

필승조 7경기서 1자책점 ‘철벽’ 추격조 김대유·황동하의 ‘부진’ 수비 경기당 실책 1.4개 ‘최다’

올해 우승에 도전하는 이범호호가 시즌 초반 연속 위닝 시리즈를 챙기며 순항 중에도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불펜에서 철벽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필승조와 달리 추격조가 부진에 빠져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는 잦은 실책으로 투수진에 피로감을 더하고 있어서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2일 경기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차전에서 6-10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KIA는 올 시즌 5승 2패(승률 0.714)를 기록하며 3위로 떨어졌다.

올해 KIA의 약점이 확실히 드러난 경기였다. 선발 양현종이 5.1이닝 4실점으로 몰리던 뒤 이범호가 시즌 첫 등판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제 역할을 했지만 7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판한 김대유가 천성호에게 내야 안타, 로하스에게 2루타를 맞으며 1사 2·3루 위기를 만들고 한 타자도 처리하지 못한 채 내려갔다.

김대유의 뒤를 이어 등판한 황동하가



KIA타이거즈 투수 김대유(왼쪽)와 황동하.

김민혁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두 명의 승계 주자는 실점으로 이어졌다. 이미 지난 주 두산과 3연전에서 두 차례 등판해 모두 점수를 내줬던 김대유의 연속 실점 기록이 3경기로 늘어났다.

김대유의 부진은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김대유는 올해 4경기에서 2.2이닝을 소화하며 5피안타 2볼넷으로 5실점했다. 평균자책점은 16.88에 이른다.

같은 사이드업인 임기영이 부상으로 이탈해있는 상황에서 전혀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필승조 활약이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추격조 부진은 뼈아프다. 올 시즌 KIA 필승조는 과도규와 전상현, 장현식, 정해영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일하게 최지민이 4경기에 등판해 4이닝을 소화하며 1실점을 내준 것이 전부다.

김대유에 이어 등판한 황동하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황동하는 김대유의 승계 주자를 모두 불러들인 뒤 강백호를 플라이, 황재균을 땅볼로 처리하며 7회 말 수비를 매듭지었지만 8회 말 급격히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KIA타이거즈 제공

황동하는 선두타자 장성우와 박병호를 모두 볼넷으로 내보낸 뒤 김상수를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배정대에게 땅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3루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이 나오며 실점과 함께 1사 1·2루로 위기가 이어졌다.

이어 천성호를 인필드플라이로 잡아냈지만 로하스에게 다시 볼넷을 내주며 2사 만루에 몰린 뒤 김민혁에게 삭슬이 2루타를 맞으며 4실점으로 빅이닝을 허용했다.

자책점은 없었지만 앞선 두 차례 등판

에서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모습이었다.

김대유와 황동하의 부진은 결국 추격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범호 감독은 3일 KT와 리턴 매치를 앞두고 황동하와 김대유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는 대신 이준영과 김건국을 올렸다. 이준영과 김건국은 김대유, 황동하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수비진도 투수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7경기서 10개 실책을 범했는데 경기당 평균으로 따지면 1.43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다. 무실책 경기가 세 차례에 그쳤고 공짜로 내준 실점만 8점으로 전체 31실점의 25.8%에 달한다.

내야 수비 안정화도 과제다. 올 시즌 실책 10개 중 8개가 내야에서 나왔다. 김도영과 김선빈이 3개, 서건창과 한승택이 1개씩을 누적했는데 가뜰이나 제구난조에 시달리는 투수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필승조와 추격조의 경기력 격차가 도드라지고 잦은 실책까지 겹치면서 KIA는 시즌 초반 잡을 경기를 잡으면서도 농칠 경기는 놓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승 도전을 위해서는 농칠 경기도 따라잡을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송정동초, 광주센트럴병원장배 초등야구 우승

송정동초 야구가 제11회 광주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사진)

송정동초는 지난 2일 광주 첨단야구장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 결승에서 대성초를 6-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달 25일부터 광주지역 7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2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송정동초는 학강조를 5-0으로, 서석초를 4-2로, 서림초를 7-0(5회 풀드게임)으로 연파하며 3승을 거둬 A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송정동초는 준결승에서 수창조를 5-4로 몰리던 뒤 이날 결승에서 만난 대성초를 상대로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완승을 거뒀다. 송정동초는 이번 우승으로 오는 5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동성중과 함께 광주 대표 자격으로 출전한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송정동초 김민욱이 선정됐고, 타격상은 11타수 7안타(타율 0.637)를 친 송정동초 이태규가 받았다. 송정동초의 고운성은 우수투수상을 차지했다. 송정동초 정재열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진행

### 123개소 2억7000여만원 투입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123개소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말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전국 시·도 평가'에서 우수 시·도로 선정돼 지원 받은 국비 1억8550만원과 시비 7400여만원 등 총 2억7000여만원이 투입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보치아, 탁구 등

동호인클럽 24개소에 운동용품, 시설이 용료, 클럽매니저 수당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유형별 교실 41개소와 생애주기별교실 28개소, 특화교실 14개소, 어울림·동호인대회 16개소에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등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한다.

특히 5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 및 북구·남구반다비체육센터 등 자치구 내 거점 체육시설의 적극 활용해 자치구생활체육시대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고 선수단이 지난달 29일 학교 도담마루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 광주체고 “전국 체고 대항서 학교 명예 드높일 것”

### 장관기 체고 대항전 오늘 개막

13개 종목 선수 등 201명 참가 금 10·은 6·동 21개 메달 목표

“전국 체고 대항전에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학교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이하 체고 대항전)에 출전하는 광주체육고 선수단의 각오다.

국내 최강 체육고등학교를 가리는 올해 ‘체고 대항전’이 4·6일 3일간 울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국체고 교장협의회와 울산스포츠과 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체고에서 2500여명(선수 2000·

임원 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남·여 각각 13개 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경기종목이 많은 관계로 유도·근대5종·복싱·태권도·핀수영 등 5종목은 2·3일 사전경기로 치러진다.

이밖에 육상·수영·체조·역도·사격·양궁·레슬링·펜싱 등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체고 선수단은 육상 등 13개 종목, 31개 종별에 선수 169명(남 117·여 52명), 감독교사 11명, 코치 21명 등 총 201명이다.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21개 등 총 37개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조 국가대표 문건영(3년)이 4관왕 이상을 노린다.

문건영은 지난 대회에서 금 4개(도마·

평행봉·철봉·안마·개인종합)와 은 2개(마루·링)를 획득했다.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97kg 이재혁(2년)과 자유형 57kg 박인성(2년), 자유형 76kg 임선교(3년)는 금빛 굴리기에 도전한다.

태권도 웰터급 나정우(3년)와 핀수영 표면 400m 홍수진(3년), 양궁 70m 최우진(3년)도 금메달을 노린다.

광주체고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달 29일 학교 도담마루에서 제38회 체고 대항전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육철수 광주체고 교장은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동환 기자